

광주시·전남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성적표

문화수도 887억(광주) SOC 3조9000억(전남)

야구장 건립 등 현안 줄줄이 미반영 F1 삭감 예산 전남도서 떠안을수도

광주시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난해보다 1374억원이 증액된 1조3818억원의 국비를 확보, 미래성장사업의 연구개발(R&D) 및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광주 미래의 양축을 정착시켰다고 자평하고 있다. 차세대 플라스틱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45억원) 등 연구개발에 26건(1419억원),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운영(10억원)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30건 887억원을 반영시켰다.

특히 남구 송암산업단지 내 들어설 CGI(컴퓨터 생성 화상, computer-generated imagery)센터 내 장비구축의 경우 어려움을 것이라는 대내외의 예상을 깨고 2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야구장(100억원)·문화콘텐츠기술(CI)연구원(42억원)·동북아상품거래소(30억원) 등 당장 내년에 착공해야 할 시설들의 예산 확보가 무산됐다. 또 민선 5기 들어 강운태 광주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황룡강 이수레저 하천환경조성(250억원), 광주전 상류 소규모 다목적 댐 건설(30억원), 폐기물 전처리 설치사업(38억원) 등이 모조리 미반영됐다.

정부의 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방침으로, 동광주~광산나들목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도로 사업 7건도 내년 예산 531억원이 반영 안 돼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에서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도로사업은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라며 "국가예산은 5% 증액된 반면 광주는 그 2배가 넘는 증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국비 확보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은 광주 연구개발(R&D) 특구 육성(50억원) 등 25건 943억원, 계속사업은 광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339억원) 등 94건 1조2875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

출된 이후에도 국회예산심사과정에서 한 톨도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가 또는 증액 반영할 사업들을 쟁길 방침이다. 여·야 구분없이 각 정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추가 반영시킬 주요 사업은 폐기물 전처리시설(100억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42억원), 광주고속도로 진입도로개설(300억원) 등이며, 증액 반영사업은 CGI센터 장비구축(50억원), 아시아문화투자조합운영(40억원), 진곡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450억원) 등이다.

전남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내 국고 지원 현안사업비는 모두 509건의 6조9804억원. 지난해 정부 예산안 486건(6조2263억원)에 견줘 7541억(10.8%) 늘어났다. 언뜻 수치로만 보면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선, 전남도가 최대 현안으로 꼽

는 F1(포틀러)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비 100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 대회를 사실상 도비로 치러야 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F1경주장 건설을 위해 요청했던 국비 880억원도 528억원만 반영돼 올해 352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40억원(특별교부세)만 확보해놓았을 뿐인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전남도가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KAVO 출자사들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과 올해 전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SOC예산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전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예산안은 모두 1조9559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5875억원만 반영됐다. 특히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주변 기반시설로 추진했던 2740억원(4건) 가운데 920억원만 반영돼 정부의 여수박람회 지원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박종영 전남지사와 정순남 정부부지사 등이 밟 밟고 나섰던 사업들도 줄줄이 삭감됐다. 예컨대 ▲신안

▲해남 화원간 연결도로 개설(100억원)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200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200억원) ▲흑산도 경비행장 건설(100억원) ▲영산강 하구둑 대체교 건설(100억원) ▲하의~신의간 연도교 건설(100억원) 등도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분야가 3조9194억원으로 전남도 전체 정부예산안의 56%를 차지했다. 고속도로는 3개 노선에 6605억원으로 ▲전주~광양 2627억원 ▲목포~광양 3905억원 ▲광주~완도 73억원 등이다.

철도는 7개 사업 1조9526억원으로 ▲호남고속철도 1조6000억원 ▲순천~여수간 전라선복선 전철화 408억원 ▲익산~순천간 전라선 복선전철화 1600억원 ▲전주~광양간 철도건설 1100억원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국고 사업비의 추가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1월에 열리는 국회 상임위와 예정된 심의기간에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주요신규사업 반영 내역

◆ 광주 (억원)

사업명	2011년 반영액
광주 연구개발 특구 육성	50
차세대 플라스틱 태양전지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	45
클린지열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육성	10
High-Tech Mold마케팅 허브구축	10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10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운영	10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및 지원	10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2
글로벌 수준의 CGI제작 환경 구축	20

◆ 전남 (억원)

사업명	2011년 반영액
세라믹 원료소재산업 생산기반 구축	20
해양펜션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18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추진	24
공공청소수선시설 건립사업	42
들녁별 공동 영농단 육성지원	10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지원	180
농산물 저온저장고 용자사업	30
벌교 교막 중요매양장 조성사업	10
호남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12
영산강(호)환경정화선 건조	50
빛그린 국산산단 진입도로 개설	20
영광 대마산단 진입도로 개설	20
나주 미라산단 진입도로 개설	6
탐진강 살리기	10
근로자 지역산업보전센터 건립(광양)	10

“내년 예산안 서민·지방 죽이기 예산”

민주당, 4대강 예산 민생예산 전환 촉구

민주당은 28일 2011년도 정부 예산안 4대강 사업 관찰만을 위한 '서민 절망, 지방 죽이기 예산'이라고 평가한 뒤 4대강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6.8%나 증액 편성한 반면 서민 교육복지와 지방재정 지원 예산은 삭감되거나 현상 유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4조9968억원이던 4대강 예산을 7779억원 증액해 5조7747억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감을 5.7%의 3배에 가까운 15.6%

증액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할 경우 내년 4대강 사업비는 올해 8조1968억원보다 16.8% 증가한 9조5747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전무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 7.7%(2조7000억→2조5000억) 삭감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 7.8%(3조1000억→2조9000억) 삭감 ▲내국적 증가에 따른 교육교부금 자연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교육예산 증가율 0%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4대강사업 예산 민생 수렴 ▲친환경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 1조원 확보 ▲의무지출 제외한 2011년 예산증액분 서민복지 예산 증액에 사용 ▲지방재정 지원 대책 수립 ▲MB 부자 감세의 항구적 철폐 등을 2011년 예산안 심사 원칙으로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내달 7일부터 21일까지 광주·전남 공공기관 국정감사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회의 2010년 국정감사 일정이 28일 확정됐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 주요기관으로는 광주시청과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교범·지법과 광주고검·지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시 및 전남도 교육청, 전남대학교 등이 포함됐다. 또 순천교도소, 국립나주병원, 화순전남대병원, 화순의화생명산업단지,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대해서는 현지 시찰이 실시된다.

전남도청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광주·전남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다. (일자, 기관, 장소 순)

▲7일(목) = 광주지방기상청 등, 국가기상위성센터(한노위, 오전 10시)

▲8일(금)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부산항만공사(국토해양위, 오전 10시)

▲11일(월) = 광주교범·지법 등, 광주교법(법사위, 오전 10시) 광주고검·지검 등, 광주고검(법사위, 오후 2시) 광주세관 등, 관세청(기재위, 오후 2시)

▲12일(화) = 현지 시찰, 순천 교도소(법사위, 오후 2시)

▲14일(목) = 광주지방국세청 등, 광주지방국세청(기재위, 오전 10시) 현지 시찰, 국립나주병원·화순전남대병원·화순의화생명산업단지(보건복지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한국철도공사(국토해양위, 오전 10시)

▲15일(금)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기재위, 오전 10시)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교과위,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교과위, 오후 3시) 현지 시찰, 국립소록도병원·에양원(보건복지위)

▲19일(화) = 광주과학기술원 등, 한국과학기술원(교과위, 오전 10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영산강유역환경청(한노위,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한노위, 오후 2시)

▲20일(수) = 광주시, 광주시청(행안위, 오전 10시)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행안위, 오후 3시)

▲21일(목) = 전남대병원 등, 국회(교과위, 오후 3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화인민공화국 61돌 경축 리셉션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총영사 엔펑란)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제61주년 국경절(10월 1일)을 맞아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정순남 전남도 정부부지사,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등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 리셉션을 가졌다. /최한태기자 choi@kwangju.co.kr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하나투어

예약문의 0621224-0022

광주 무안직항기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전일빌딩 1층 투어뱅크

구. 도청

금남로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1 한국농협협회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파워 1위

BRANDSTAR

브랜드스타 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스타 1위

KSSQI

한국표준협회선정 (2007~2008) 2년연속 KS-SQI 서비스품질지수 1위

광주, 무안장기계 직항

9월 17일~11월 30일 (화,금) 749,000원

- 장기계 관광의 하이라이트 '천문산 관광포함'
- 기본 관광 ALL포함(장기계+원가계+보통호+용왕동굴)
-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맛사지 체험'
- 행사 차량에 시원한 '생수상시 비치'

무안출발 마닐라

마닐라/팍상한/따가이따이 4일 399,000원~

- 출발: 10/28일 ~ (목요일) ▶항공: 에어필리핀(2P)
- 특전: ▶따가이 트레킹 전망대 ▶세계 제4대 절경 '팍상한폭포' 관광 ▶리조트공원, 산티아고 요새

마닐라/보라카이 5일 699,000원~

- 출발: 10/31일(일요일) ▶항공: 에어필리핀(2P)
- 특전: ▶보라카이 호핑투어 ▶리조트공원, 산티아고요새 관광 ▶씨푸드 중식

광주(서틀버스)출발 북큐슈 초특가

북큐슈 4일 (9월 30일, 10월4일 한정) 429,000→389,000원 (9월 30일은 1만명 인성형)

단 3회

상품특전

- 백제의 건축기술을 엿볼수 있는 우수신궁 관광
- 일본3대성중 하나인 구마토모성(熊本城) 관광
- 일본의 아자기기함을 느낄수 있는 유후인 긴린 호수 및 민에거리 관광
- 세계 최대 킬데라를 자랑하는 아소 활화산 관광
- 스루가이드가 한국에서 일본까지 전일정을 함께 합니다.
- 최소출발인원은 10명이상이며, 광주/부산간 국내서틀버스는 최소16명이상이 되어야만 출발가능합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필수 경비 포함 : 여행자보험(해의 1억원/국내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안내원비용 ■ 선택경비 : 개인적 선택에 따른 현지선택관광은 별도비용일정요에 명시, 개별적인 팀 및 비지비용 별도 ■ 서울시 중로구 공평동 1번지 (주)하나투어 ■ 일반여행업 등록 377호(서울) ■ 관광 불평신고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5억 보증보험 가입(보험기간 : 매년 2월 1일 - 다음해 1월 31일) ■ 최소 출발인원 : 10명 ■ 승수 : 4승급 호텔 이상 ■ 교통편 : 항공 / 버스 ■ 상가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배는 요금변동없음)